

남성해운

2010년도 임원 승진 인사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이 4월 1일자로 김용규 이사를 상무이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용규 이사→상무이사

△이동은 부장(본사 운항기획팀장)→이사(본사 운항기획팀 & 수출입영업팀 총괄)

△박재규 부장(부산사무소 업무팀장)→이사(부산사무소 업무팀 총괄)

△권오주 부장(부산사무소 해사팀장)→이사(부산사무소 해사팀 총괄)

대양상선

파나막스 벌커 매입

대양상선(대표 정유근)이 최근 중고 파나막스 벌크선 1척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발표된 마켓리포트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양상선은 지난 1월께 6만8,158DWT급 파나막스 벌크선 Silvergate호를 매입했다.

Silvergaet호는 1987년 일본 코요조선이 건조한 벌크선으로 대양상선은 1,150만달러에서 1,200만달러 정도에 선박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파나막스 벌크선의 중고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년 이상된 파나막스 벌크선의 중고선가가 1,500만달러대에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양상선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파나막스 중고 벌커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선을 확충하기 보다는 주로 용선대를 활용해왔던 대양상선은 이번에 Silvergate호를 매입하면서 사선대를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늘리게 됐다.

대양상선은 3만5,691DWT급 핸디사이즈 벌크선 에버라임호와 3만7,238DWT급 핸디사이즈 벌크선 마라나타호 등 2척의 벌크선을 사선대로 확보하고 있었는데 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두원상선

한~러~일 로로서비스 개설

국적외항선사인 두원상선(대표 이석기)은 3월 중순부터 일본 후시키도야마(伏木富山)과 블라디보스톡간 로로서비스 정기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선사는 부산-러시아-일본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완성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부산~블라디보스톡~부산~후시키도야마~블라디보스톡~부산 순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며, 부산~블라디보스톡간에는 주간정요일로, 후시키도야마~블라디보스톡간에는 격주로 서비스하게 된다. 투입선박은 Ocean Pride(3,450DWT/승용차환산으로 500~600대 적재)호다.

두원상선(대표 이석기)은 지난 2007년 외항해 운업에 등록했으며, 보유선은 3,000~4,200GT급 벌크선 2척을 보유중이다.

범주해운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범주해운(대표 이상복)은 지난 4월1일 심재봉 이사를 상무로 진급시키는 등의 2010년도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이사→상무 : 심재봉(沈在奉), 정광순(鄭光淳), 전정대(全正大)

△과장→차장 : 김제봉(金濟峰)

△과장 대리→과장 : 양기영(梁起榮), 김요한(金

要漢), 박민중(朴玟重), 장두희(張斗熙), 백진욱(白晉旭), 최찬규(崔燦奎), 박영덕(朴永德)

△주임→과장대리 : 성준석(成竣碩), 조현탁(趙顯卓), 배성한(裴成漢), 김용찬(金容燦)

△사원→주임 : 모영준(牟泳峻), 송한원(宋漢元), 백승주(白承柱), 김대진(金大鎭), 이미영(李美英), 임우성(林又星) 이의정(李義正), 황은경(黃銀景)

STX팬오션

비벌커 사업분야 영업비중 확대

국내 최대 벌크선사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지난해 LNG 수송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4천TEU급 컨테이너선을 용선으로 확보, 컨테이너, 유조선 등 비(非)벌크 비중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시황 급락 여파로 잠시 '주춤' 했던 사업다각화 전략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당초 STX팬오션은 벌크선에 집중돼 있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2010년까지 비벌크부문의 비중을 기존 10%에서 30%수준으로 늘리기로 계획 했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TX팬오션은 최근 4천4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을 12년 장기용선형태로 도입하고, 연내 동일한 형식으로 1~2척을 추가인도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운항중인 아시아 역내 근해항로를 비롯, 향후 원양항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에 확보하는 4천400TEU급은 정기 원양항로인 유럽항로에도 투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STX팬오션은 균형성장을 위해 벌크와 비벌크 부문의 투자규모를 5:5로 유지하고, 올해 탱커 1척, 자동차선 2척, LNG선 1척 등 올해 총 5척의 비벌크 사선을 확보한다.

앞서 반잠수식자항선 'STX ROSE' 호를 활용해 프로젝트성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헤비리프트 시장에도 진출, 성공적인 첫 항차를 마치기도 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STX팬오션의 사업 부문별 비중은 벌크부문이 77.8%로 압도적이며, 이어 컨테이너 11.5%, 탱커 7.2%, 자동차 0.7%, LNG 0.7% 등이다. 당초 STX팬오션은 2010년까지 비벌크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닥친 금융위기 및 시황하락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의 벌크부문 비중이 90%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STX팬오션의 비벌크 전략이 큰 차질 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진해운

알헤시라스 전용터미널 개장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은 하반기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 터미널을 시작으로 2011년 베트남 탄깡카이몹(Tan Cang-Cai Mep), 2013년 미국 잭슨빌(Jacksonville) 터미널 등을 차례로 개장한다.

개장 예정인 터미널을 포함, 국내외 총 15개의 전용터미널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GTO)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해운경기가 살아나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터미널 처리량도 함께 증가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수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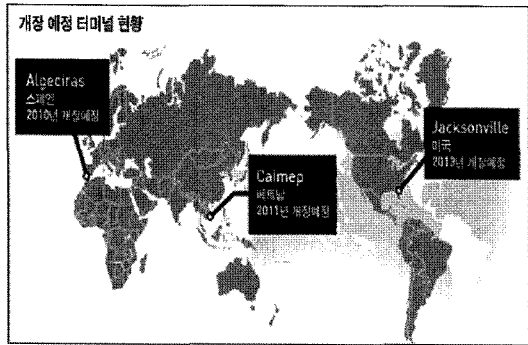
또한 한진해운은 2010년 3월19일, 한진해운 본사 사옥에서 제 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총은 작년 지주회사 분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정기 주주총회로써, 김영민 사장을 비롯

해 회사 경영진 및 주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출액 6,681억원, 영업손실 304억원, 순손실 865억원 등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기업분할로 인해 2009년 11월까지 경영실적은 지주회사의 중단사업손익으로 반영되었으며, 신설법인 한진해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2009년 12월 한달 동안 실적만 반영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은 “작년 최악의 해운 시장 악화로 인해 10년 연속 배당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뼈를 ·A는 노력을 펼쳐 주주들의 신뢰와 애정에 보답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2010년은 한진해운에 있어 기업 분할 후 첫번째로 맞는 실질적인 사업연도가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흑자경영 달성을 통한 턴어라운드 기반 구축”이라는 경영 목표를 가지고 해운산업 부문 수익성강화, 전사적인 Risk Management 구축, 재무구조개선, 사업부문별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강도 높게 실시 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중동 지역 서비스 확대 재편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은 하팍로이드(Hapag-

Loyd)와 손잡고 극동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기존 KMS(Korea-Middle East) 항로의 기항지와 투입선박 규모를 크게 확장한다.

우선 현대상선의 투입 선박을 4,6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서 6,500TEU급 5척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하팍로이드의 6,8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신규 투입해 총 6척의 선박으로 서비스 규모를 늘린다.

또한 서비스 항로에 중국 상해와 닝보, 이란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를 추가시켜 중국과 중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KMS 서비스의 변경된 항로는 광양-부산-상해-닝보-기룽-홍콩-얀티안-싱가포르-포트켈랑(Port Kelang)-제벨알리(Jebel Ali)-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카라치(Karachi)-싱가포르-홍콩이다. 변경된 서비스는 오는 4월19일 광양항에서 부터 시작된다.

현대상선은 “이번 서비스 재편은 향후 늘어날 중동 지역 물량수요에 대비하고 대화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일 최대 해운사인 하팍로이드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시장 점유율을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상선은 해외 플랜트 화물의 육·해상 통합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상선은 23일 국내 최고 중량화물 육상운송 업체인 (주)동방, 물류업체인 현대택배와 손잡고 합작법인 현대동방아틀라스(HD Atlas Co., Ltd.)를 설립했다. 앞으로 현대동방아틀라스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필요한 중량화물의 육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원전이나 플랜트 등 해외 건설 사업에 필요한 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발전기나 기계 설비 등 무게가 300톤을 넘는 중량화물과 자재나 소모품 등 일반화물이 그것이다. 특

히 중량화물은 화물 자체가 무겁고 고가인데다, 현지로 이송 후에도 이상 없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 및 해상 운송에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량화물과 일반화물 해상운송은 현대상선이, 중량화물 육상운송은 새롭게 설립한 합작법인 현대동방아틀라스가, 일반화물 육상운송은 현대택배가 각각 맡는다.

현대상선은 이미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중량화물 운송사업에 진출해 현재 10,000~30,000DWT급의 중량화물용 선박 3척 등 국내 최고의 중량화물 전용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금년에 3척, 내년에 3척을 도입해 총 9척의 전용선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1위의 중량화물 육상 운송업체인 (주)동방과 일반화물 물류업체인 현대택배가 참여한 것이다.

사업 전망은 굉장히 밝다는 평가다. 우선 2003년 25억달러 규모였던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지난해는 357억 달러로 성장세를 보이는데다가, 그동안 유럽 및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던 중량화물 운송 노하우를 이제 국내 운송업체들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고객들이 플랜트 사업에 필요한 화물의 육·해상 운송, 통관, 보관 등 일괄물류(Integrated logistics) 서비스를 현대상선 한 회사를 통해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업체들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규시장의 성장세는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흥아해운

흥아해운 김태균 대표이사 재선임

흥아해운(대표 김태균)은 2009년 3월 19일 오후 10시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프 WORKS동 1층

대회의실에서 제49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09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승인과 정관 일부변경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회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이날(3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태균 이사는 참석 주주들이 지지의 큰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다.

당일 승인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출액 5,476억원을 실현하고, 전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 불리한 해운환경 속에서도 주주 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주당 7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총회에서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도에는 최근의 선복량 공급과잉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원가절감을 단행함은 물론 대내외적 RISK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실경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사업 개척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며, 특히 2010년은 해운 외 계열사들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하여 IR활동을 강화하여 시장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케이엘넷

창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물류IT 전문기업 케이엘넷(대표 박정찬)은 창립 16주년을 맞아 4월1일 대회의실에서 외부인사와 전임직원 등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1994년 설립된 케이엘넷은 항만청,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검역소의 수출입물류 전자문



서서비스(EDI)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항만에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항만물류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 서 오고 있다.

창립 16주년을 맞아 케이엘넷은 그동안 쌓아온 물류IT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물류시대를 선도하고,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물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물류자동화시대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케이엘넷 박정천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비전 2020의 모토아래 고객중심의 열린 사고와 글로벌 물류IT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서비스 혁신, 신기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적극적인 국내의 마케팅 활동으로 2020년까지 매출 3천억원의 글로벌 물류IT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 행사후 케이엘넷 임직원들은 최신 개봉작 ‘타이탄’ 영화를 함께 관람 하며 임직원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선급

IACS EG/ILO 의장직 유치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이 국제선급연합회의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그룹(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Expert

Group/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ACS EG/ILO)의 의장직을 수임했다.

한국선급 협약심사팀의 전정총 팀장이 의장직을 맡아 2011년 발효가 예상되는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인증검사에 대한 IACS의 공통 규칙 또는 적용 지침 등을 신규 개발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시행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결정사항을 국제선급연합회 일반정책 그룹(IACS General Policy Group : IACS GPG)에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해사노동협약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IACS 차원에서의 전문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IACS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그룹은 해사노동협약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신설되어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나 IACS에 대한 EU 경쟁총국의 조사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 해사노동협약 시행을 위한 IACS 차원에서의 통일된 준비작업의 필요성을 재인식한 IACS 일반정책 그룹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재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의 전정총 팀장은 “이번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IACS내에서의 인증검사 규칙 또는 지침 개발에 한국선급이 주도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사에 대한 기술지도와 인증검사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업무를 더욱 활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3월10일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이윤재)은 3월 10일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2월 갱신 결과

193개 회원사, 770척, 869만톤, 보험료 U\$2,512만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도 보험료 대비 32%가 성장한 것으로, 가입선박 156척, 연간보험료 124만불로 시작된 10년 전과 비교하면 20배가 확장된 것이다.

특히 최근 실적은 2006년 이후 보험료 4배 성장, 100여개이상의 선사 추가 가입, 가입선박 350여척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담보한도를 최대 1억불에서 3억불로 상향조정하여 캄보디아 스 선박이나 미국기항 선박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보증보험사와 맺은 지급보증서 제공 협정을 통하여 KP&I의 재정보증서가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범세계적인 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38개 주요 항구의 연락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본격적으로 world wide 중대형선박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산 역시 전년대비 46%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 비상준비금은 115억원이 되었고, 지급여력비율은 800%에 달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KP&I는 “Lloyd’s 등 우량 재보험자와의 유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한 국제 P&I 클럽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등 클럽의 중장기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해외에 지급되는 재보험료는 총 수입보험료의 10% 미만으로, 외화유출 저지라는 설립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외 금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남성해운 김영치 회장, 신라교역 배삼철 사장이 이사로 중임됐으며 대한통운 김세종 본부장, STX Panocean 손점열 상무, 대한해운 안계혁 상무가 각각 신입 이사로 선임됐고, SK해운의 윤형진 본부장이 새로운 감사로 선임됐다.

한편 KP&I는 2015년 보험료 5,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아 힘찬 성장 동력 가동을 위해 본격

적인 항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기사협회

3월10일 제56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홍기)는 3월10일 오전 11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도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을 비롯해 추형호 전 회장 등 전현직 협회 임원들과, 외부 손님으로 안영섭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장, 예병덕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등 해운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 2009년도 사업실적 및 △ 2009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등을 승인 받고, 맞춤형 해기사 양성 확대, 해기사 명예의 전당 운영 정착화, 회원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및 국내 해기사의 수급과 고용안정화 방안 연구, 협회 이미지와 해기사 홍보 및 조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사업으로 △국내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승선근무 예비역 증원 및 제도 개선 △튼튼제도와 선원정책 연계한 정책 개발 △해기사 시험문제 공개 및 문제집 발간 △해양사상 보급 및 해기직업에 대한 홍보 활동 △예비 해기사에 대한 홍보 및 조직 강화 △해기사 명예의 전당 운영 정착화 등 특별사업과, 정책활동을 비롯하여 조직활동, 복지활동, 홍보 활동, 경영합리화 사업 등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국내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김창천(전 부산항도선사회 회장), 박진수(한국해양대 교수), 이

찬수(목포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상무)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또한 해운 일선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한진해운 선장 유영국 씨 등 6명에게 모범해기사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한국해양대

청도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동남아 지역에 이어 중국의 해운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섰다.

오거돈 총장과 이윤철 국제교류교육원장, 최석운 해사대학 부학장으로 구성된 대학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중국 청도와 해남도 등을 방문, 중국해양대학 부속 청도대학과 국제학술교류 협정(MOU)을 체결하는 등 해사 교육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유한 한국해양대의 위상을 강화했다.

한국해양대는 그동안 중국해양대학(총장 Liu Kong-qing) 부속 칭다오대학이 올해 중국 하이난다오 썬야지역에 해양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는데 따라 한국해양대의 해외 브랜치(branch)화 문제 등을 심도있게 협의해왔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칭다오대학은 중국 해양대가 신장생산건설부대의 칭다오 덕태 투자자순유한공사와 투자 합작하여 2005년에 설립한 사립형 부속대학으로서 재학생 약 7천500여명, 17개 학부전공과 6개 전문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 총장 등은 지난 6일 칭다오대학을 방문하여 양 대학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7일 '한국해양대와 중국 해양대 부속 칭다오대학간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해양대는 칭다오대학의 하이난다오 해양대 설립에 대한 인력지원을 비롯해 학술연구와 교육에 관한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와 강연 및 토론회 실시, 학술 연구정보 교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 총장 등은 8일에는 하이난다오 썬야지역 해양대학 설립 부지를 시찰하고 칭다오대학 Li Guang-zhou 이사장과 해양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 대학 간의 우호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는 물론 대학의 국제화지표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해양대는 칭다오대학에서 수학을 마친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여 향후 한국어교육부 어학연수과정 참여 및 편입을 통해, 이른바 '2+3' 또는 '1+4' 시스템의 교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칭다오대학의 해양대학 설립 시에는 한국해양대가 교수진 파견 및 교수요원 양성 등의 인력 지원 및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참여기로 협의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해 동남아지역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전 단계로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순방하며 현지 정부 당국자와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경영과학대학(MSU)과는 국내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을 운영키로 해 오는 6월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항해학과 및 기관학과 학생 100여 명을 모집하여 앞으로 2년간 한국해양대 학생들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거돈 총장은 "현재 우리 대학은 동남아지역의 필리핀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도 계속하여 해외 브랜치(branch)를 확대 추진 중"이라며 "이번 중국해양대 부속 칭다오대학과의 협정 체결로 한국해양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양특성화 명문대학임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